

한·호주 FTA, 광주·전남 수출 호재로

자동차·타이어·철강·석유화학 등 관세 즉시 철폐

광물자원 안정적 공급선 확보…농축산업은 타격

한국·호주 FTA가 지난 8일 공식 서명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철폐 혜택을 받게 돼 대(對) 호주 수출물량은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농축산업은 다소 피해가 우려된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이번 한·호주 FTA로

관세 즉시철폐되는 자동차와 타이어, 가전, 철강, 석유화학은 대부분 광주·전남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

광주·전남의 지난해 대 호주 수출액은 총 23.7억달러로 광주가 2억 4000만달러, 전남이 2억 3000만달러에 이른다. 호주는 광주의 10번째, 전남의 4번째 수출대상국이다.

이번 FTA는 특히 광주의 수출 개

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와 삼성전자 등 광주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와 세탁기, 냉장고·냉동고, 타이어 모두 기존 5%에서 0%로 관세가 사라지거나 3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를 모두 광주의 상위 10대 주력 수출 품목들이다.

전남의 수출 증가세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석유제품은 기존 무관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도금 철강선, 철강재 구조물 등 철강제품의 관세는 즉시철폐, 프로필렌, 스티렌 등 석유화학 제품도 5년 내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호주가 전남 최대의 광물자원 공

급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FTA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공급처를 확보할 것도 수혜 대상이다.

지난해 전남이 수입한 철광석의 72.5%, 유연탄 46.8%, 무연탄 60.1%가 호주에서 수입됐으며 원자재 수입이 전남의 만성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향후 전남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긍정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반면, 지역 농축산업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에 달하는 수입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져 15년 뒤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FTA가 2015년에 발효될 경우 2030년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농산물도 이번 협정에 따라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 수 기준 61.5%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한·호주 FTA로 인해 지역의 수출 증가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상호보완 효과를 누리게 됐다”며 “지역 농수축산업에는 다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내 소득으로 구입가능 아파트 물량 파악

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물량지수 도입

앞으로 내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 중 내 소득수준으로 살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미국에서 활용하는 주택구입물량지수(HOI)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개선한 주택구입물량지수(K-HOI, 코이)를 도입해 연 단위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코이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아파트 재고량을 전체 아파트 재고량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시세, 통계청의 근로자 가구 중위소득, 20년 만기 고정금리 원리금 평균 등 상황 방식 주택답보대출 조건 등을 토대로 한다. 코이가 높을

을수록 자신이 사는 지역의 아파트 구입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의 코이가 낮았다면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가구가 한국감정원 시세에 등재된 경기지역의 아파트 중 58.2%를 구입할 수 있음을 뜻한다.

주택금융공사가 2013년 말 기준 코이를 산출한 결과, 전국 기준 중위 소득 가구가 주택 구입을 위해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4658만원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6405만원과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 1억 8253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또 이 금액 이하의 아파트는 전체 689만여 가구 중 436만여 가구

로 전국 기준 코이는 63.3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27.4), 경기(58.2) 지역의 코이가 낮았다. 이는 서울·경기지역의 가계소득 및 순자산 규모가 전국 상위권이지만, 주택가격이 높아 지역 총 아파트 수 중 구입 가능한 아파트 수가 다른 지역 대비 적기 때문에 분석됐다.

이와 달리 울산(84.4) 지역의 소득 수준은 서울 다음으로 높고 자기자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준이었지만 주택가격이 전국 중위권 수준으로 유사한 소득 수준에 있는 서울, 경기보다 코이가 매우 높았다. 코이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95.8)으로 전국 최저인 서울(27.4)의 3.5배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분기 상가 공급 ‘풍성’… 작년 동기보다 2배 늘어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부담 영향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올해 1분기 상가 공급이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114는 1분기 분양된 상가가 전국 총 69개 단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27개 단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분기만 따질 때 2010년(74개 단지) 이후 최다 물량이다.

이처럼 상가 공급이 늘어난 것은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투자처로 상가에 주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에 풀린 상가 중에서는 기타 상가(주거공간과 상가가 공존하는 형태)가 27개 단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린상가(24개 단지), 단지내상가(15개 단지), 복합상가(3개 단지)가 뒤를 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물량의 58%(40개 단지), 지방이 42%(29개 단지)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42개 점포가 낙찰돼 평균 낙찰률 95.5%를 보였다. 성남 관교 A25-1BL 101호의 낙찰가는 9억 6050만원으로 1분기 공급된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전분기와 비해 약 4% 떨어진 3.3㎡당 2523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분양가는 3.3㎡당 2815만 원, 지방은 2120만원이었다. 수도권은 전분기(2872만원) 대비 소폭 하락했고, 지방은 전분기(1926만원) 대비 10% 가량 상승했다.

한편, 1분기에 분양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내상가는 고양, 판교, 광주, 대구 등에서 총 6개 단지, 44개 점포에 달했다.

이 가운데 42개 점포가 낙찰돼 평균 낙찰률 95.5%를 보였다. 성남 관교 A25-1BL 101호의 낙찰가는 9억 6050만원으로 1분기 공급된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전분기와 비해 약 4% 떨어진 3.3㎡당 2523만원으로

/연합뉴스



엄마·아이 함께 신는 ‘커플 슈즈’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매장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신을 수 있는 커플 슈즈가 선보였다. 친환경 소재 내외를 사용한 이 신발은 아이들의 피부에 안전하며, 최근 인기드라마 ‘신의 선물’에서 김유빈 신발로 유명세를 탔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하이트진로 ‘New 하이트’ 출시 기념회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10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 지역 150여명의 종합주류 도매업 대표 이사를 초청, 대표 맥주 브랜드 ‘New 하이트’ 출시 기념회를 열었다. 부드러운 목넘김을 강화한 맛과 점통성을 강조한 페퍼로 새롭게 출시된 ‘New 하이트’는 상표 디자인뿐 아니라 제조공정까지 전 부분에 걸쳐 신제품 수준으로 새롭게 리뉴얼됐다.

이번에 출시된 뉴 하이트는 최적의 부드러운 목넘김을 구현하기 위해 알코올 수준을 4.3%로 조정했으며 제조 공정의 운도를 0도 이하로 유지시켜 불순물과 잡미를 제거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공짜폰” 허위광고 안할게요”

이통사, 자정결의

약속하는 자정결의 행사도 진행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공짜폰’, ‘실구매가 20만원’ 등 기업자를 현혹하거나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 사업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를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방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사업자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벌인 사업자를 제재할 기준을 마련,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신고된 유통점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벌점을 부여하고, 사업자별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컴퓨터 안심 서비스 인증제’ 시행

소프트웨어 판매업 협동조합

비자가 요구하면 전문감사인력을 파견해 기술상 서비스 오류를 진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의 10배를 배상한다.

조합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도 개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물리적인 약점 수리업체를 퇴출하는 자구노력으로 소비자와 업계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경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11억준이까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1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럽평견적은 놓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광산구 381-0061 전화 352-778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경] 243-7463

구 676-7719 순천 744-8605

북구 512-7998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